

마이스 복합공간 개발사업 '속도'

전주시, 종합경기장 철거 돌입... 내년 7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본격 착수

전주시가 60여 년만의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 일대를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가속도가 붙어 왔다.

시는 지난해 철거된 야구장에 이어 오는 4월부터 본 건물 철거에 앞서 오는 6월까지 우선 건물 전장과 벽체의 건축자재로 사용된 석면과 조영담, 전광판 등 전기시설 등에 대한 내부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그동안 주경기장의 철거를 위해 건축위원회 해체계획심의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종합경기장(3만5594㎡)과 전주푸드(1057㎡), 수위실(100㎡) 등 총연면적 3만6751㎡의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철거공사에는 약 1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종합경기장이 본격적으로 철거되는 11월 전까지 전주시 대표축제인 얼티밋뮤직페스티벌과 가막축제(8월), 전주페스타(10월) 등 대규모 행사와 지역 문화 축제, 시민 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기로 했다.

이후 오는 2025년 7월 종합경기장 철거가 완료되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컨벤션 건립을 위해 시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건축기획용역을 실시 후 설계 현상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컨벤션 건립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철거된 옛 야구장 부지에는 한국문화원형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브랜드를 창출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주시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주시립미술관'이 들어서게 된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국비 204억 원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이 투입돼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7480㎡ 규모로 지어지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제작지원실 △콘텐츠 테스트베드 △콘텐츠 체험·전시실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개발소장은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로 인해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바라며, 전주의 새로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이탈리아 피렌체서 전주 매력 알려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등 참여 음식·음악 등 홍보

전주시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전주 문화의 매력을 알렸다.

시는 지난 21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제22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조직위원장 리카르도 젤리)'에 전문가를 파견해 전주의 음식과 음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우호도시인 피렌체시의 초청을 받아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2명과 청년예술가 1명을 파견해 현지로 파견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전주한식리셉션과 개막식 음악공연을 통해 전주를 알렸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된 '제22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전문가를 파견해 전주의 음식과 음악을 선보였다.

특히 피렌체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전주 문화 홍보 행사가 펼쳐진 것은 올해가 두 번째로, 지난해 파견된 한식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도 참여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전주 문화의 매력을 알릴 기회를 갖게 됐다.

먼저 한식 행사에는 전주대학교의 한식조리학과와 차경희·도현욱 교수가 참여해 전주와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자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전주비빔밥과 닭강정, 유럽의 MZ세대를 사로잡은 전주유과와 약과 등의 디저트를 선보였다.

시는 또 한식 홍보 행사뿐 아니라 한류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 이탈리아의 호텔조리학교인 SAFF(사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식 특강도 마련해 유네스코 음식

의향도시인 전주의 한식조리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또한 전통 공연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공연예술가이자 소리꾼인 노은실 씨가 참여해 피렌체 라캄파나 공연장에서 열린 영화제 개막식에서 '죽원' 등을 선보이며 현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알레시아 베티니 피렌체 부시장은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로 이탈리아 피렌체와 매우 닮아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쏟아지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전주의 매력을 만끽할 만큼 조만간 꼭 전주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마을버스 '바로온',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전주시설공단, 분기별 현장 간담회 통해 시민·운전원 의견 청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마을버스 '바로온'의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지난 22일 공단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부는 경영본부장과 마을버스운영부장, 바로온운영팀장, 노선 담당자로 팀을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총 4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탑승해 승객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이다.

또 회차지 충전기와 휴게 시설 등을 점검하며 마을버스 운전원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공단은 이용객과 운전원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현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시행해 점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이석현 경영본부장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마을버스가 되기 위해 많은 의견을 듣고자 현장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편안한 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이석현 전주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마을버스 '바로온' 승객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전주시,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나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특별지원 청소년 22명 선정

전주시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전주시청소년안전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점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상반기 특별지원사업에 신청한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생활·건강·상담·학업·자립·활동·법률·기타지원 등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1개의 항목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필수연계기관(교육센터,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시설, 보호관찰소 등)과 청소년업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심비 지급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센터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특별지원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jsangdam.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고도화'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전주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비플러스와 함께 보건 의료-복지-돌봄 전달 체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ICT 연계 기반 건강정보 공유를 통해 전주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인 '전주시 건강-의료 안전망'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 모델을 구축해 △대상자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각 제공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케어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기능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시는 지난 202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건강스마트관리사업'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비플러스와

함께 참여해 이 서비스를 개발해왔으며, 3차년도인 올해 전산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시는 시스템 실증 및 안착을 위해 지난 5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및 통합돌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전산 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어 18일부터 5일간 시청 전산과 교육장에서 35개 동 통합지원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습 교육을 운영하기도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신청 또는 발굴을 통한 대상자 접수 △초기상담을 위한 평가 및 욕구 조사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지원계획수립 및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절차별 전산 처리 과정으로 채워졌다.

또,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